



+ 김태홍 · MBC 영상기술부 부장

주말 미니시리즈 「내여자」를 마치고

- 스튜디오 조명 중심으로 -

주말 특별 기획 드라마 《내여자》가 24회로 막을 내렸다. 2008년 7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방영된 《내여자》는 8월의 올림픽과 추석 연휴 특별편성으로 결방이 많은 드라마로 인식이 되었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상대사의 《조강지처클럽》과 비슷한 시간에 편성되어 시청률에서도 아쉬움이 있는 드라마로 기억되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기획, 제작되어 방영이 종료되면 결과에 대한 기술 평가 보고서 없이 프로그램의 테이프만 남는 현실에서, 본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을 더듬어 본다. 프로그램의 영상이 완성되기까지의 조명부분에 대한 기술적 고찰과 제작과정에서의 경험에 따른 문제점 등을 나열하면서 향후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서식으로 작성해 보았다. 제작과정의 여러 분야에서 조명 한 부분의 시각으로 프로그램 제작 결과에 대한 의견을 표출 한 관계로 다소 편중된 의견이 포함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이해와 지도편달이 있길 바란다.

1. 조명 개요

24부작 미니시리즈로 기획 제작된 드라마 《내여자》는 다른 미니시리즈와는 달리 스튜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전에도 미니시리즈를 표방하고 스튜디오 카메라를 사용해 제작한 드라마 《수줍은 연인》이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기획되어 스튜디오로 제작된 미니시리즈는 《내여자》가 처음이다.

《내여자》는 금요일 세트와 소도구 설치 후 토요일 녹화를 마치고 일요일은 세트나 소도구 준비 작업을 하고 월요일에 녹화 제작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연속 녹화시 둘째 날은 세트나 소도구 및 조명 준비로 인하여 리허설 및 녹화가 늦게 시작돼 철야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를 가만하여 《내여자》는 일요일의 준비기간을 두어 월요일 녹화에 별 무리가 없이 제작할 수 있었다.

조명 세팅도 대본이 미리 나오고 세트 및 소도구가 미리 설치되어 토요일이나 월요일 새벽부터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연출자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원만한 진행을 할 수 있었다. 스튜디오의 카메라 사용을 기획한 다른 미니시리즈 제작에 있어 참고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2. 제작 배경

드라마 《내여자》는 여의도 B스튜디오와 C스튜디오를 사용하였는데, 토요일 C스튜디오는 장회장 거실과 이층거실 세트, B스튜디오는 장회장 사무실과 부속 세트로 구성을 했고 월요일의 경우 다른 세트를 B, C 스튜디오에 분산 제작하여 사용했다. 특히 장회장 거실은 세트가 스튜디오의 50%를 차지하는 대형 세트로 이 집의 외경과도 어울리는 세트 규모였다. 연기자의 출연 빈도수와 내용 흐름의 중요성을 가만하여 메인 세트로 설치하였으며, B스튜디오는 주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조 세트를 설치함으로 상황에 따라 세트 변경을 시도하는 제작형태를 선택하여 진행되었다.

3. 조명설계 과정

본 프로그램의 조명 기본설계는 연기자의 시선방향을 중심으로 키라이트(Key Light)를 사용하였다. 특히 장회장의 거실은 세트가 크고 높아 조명등기구의 선정에 있어 teleroscope을 많이 사용하였고 취약한 부분은 650w 스탠드 라이트를 보조광원으로 설치하였다. 또한, 본 녹화는 영상표현의 생동감을 높이기 위하여 카메라용 레일을 사용한 카메라 무빙(Camera Moving)의 빈도가 종종 있어, 화면 전체의 영상을 최적화 하기위한 섬세한 조명 설치를 필요로 하였다.

4. 사용된 조명기구



◎ [그림 1] DEDO Light

DEDO LIGHT

〈내여자〉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인 조명기구와 함께 사용한 조명기구는 협소한 공간에서 조명의 최대효율을 높이고 연기자의 눈, 얼굴을 잘 표현하기 위하여 [그림 1]의 DEDO Light를 주로 사용했다. 특히, 세트특성상 협소한 공간의 밤 화면(Night Scene)이나 스탠드 분위기와 부분 조명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하였고 녹화 특성상 카메라 위치 또는 세트 특성에 따라 조명기구를 세트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이 기구는 공간이 협소한 세트에서 조명효과를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기구로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확산천(일명 사)

일반 드라마에 흔히 사용하는 베이스라이트(Base Light)를 〈내여자〉에서는 후반부에 〈사〉라는 천을 사용하여 제작을 해 보았다. 원래 〈사〉는 미술세트의 소재 중의 하나였고 일본식 표현으로 “생사로 짠 얇은 직물”이라는 뜻으로 정확한 명칭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당분간 〈확산천〉이란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확산천은 작년에 방송된 MBC 주말 드라마 〈거울사〉에서 처음으로 조명에서 사용하기 시작해 현재 〈내 인생의 황금기〉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새 일일 저녁드라마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 [그림 2] 확산천 스탠드를 이용한 조명



[그림 3] 확산천을 공중에 설치한 장면 ◎

〈내여자〉에서는 장희장 거실과 이층 태성방에서 베이스 라이트 대신 부분적으로 사용을 했고 새 아침 드라마 〈하얀 거짓말〉에서도 본격 사용할 예정이다. 확산천을 이용한 간접조명 기법은 아직 초기단계이고 확산천에 대한 연구와 실무경험을 통하여 프로그램에서의 사용 기준과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확산천을 이용한 간접조명방법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 이에 대한 연구와 사용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1~2년 정도 3~4개 이상 드라마 제작을 통하여 장단점을 파악해야 확산천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과 효과에 대한 정의가 있으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확산천을 이용하여 제작된 프로그램의 결과로 본다면 부드러움에 대해서는 세트와 인물에 매우 만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주광원이 너무 부드러운 관계로 취약한 인물에 반드시 별도의 조명등기구(Kino lite) 등으로 보조광원의 운용이 필요하고 인물에 강한 맛을 표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드라마에서 확산천을 사용하는 것보다 드라마의 내용과 성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확산천을 설치하고 조명 작업을 하는 과정은 기존 제작 방법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반드시 전일 확산천의 설치와 조명 등기구 설치가 되어야 당일 리허설이나 녹화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과 공간적인 면 그리고 별도의 조명 인원을 추가로 투입시켜 별도의 조명인건비가 필요했다. 확산천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소도구 및 대도구 설치가 끝난 후 조명 포커싱까지 5~6시간 정도 걸리며, 당일 설치 사용은 우리 여건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소도구 설치가 끝난 시점부터 조명을 시작하면 드라이 리허설은 오후 4시나 5시 이후에나 가능하고 녹화는 항상 저녁 시간 이후에 시작되 거의 철야 녹화를 해야 하고 다음날 녹화는 늦어진 세트나 소도구 등으로 인하여 철야 작업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5. 연출과 조명

연출자 이관희 감독과 수목 드라마 〈폭풍의 계절〉 “아들의 여자”와 주말드라마 “엄마야 누나야”에서 조명감독으로 참여했다. “내여자”의 경우 다른 작품 연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관희 감독은 매일 아침 세트에 대한 조명의 분위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편집과정과 야외 촬영에서 있었던 조명의 아쉬운 부분이나 진행되고 있는 극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조명 세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내여자〉제작과정에서 이관희 감독은 조명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부탁했다.

- 여자 연기자의 스킨톤은 보다 화려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할 것
- 장중한 거실 세트를 보다 웅장하고 깊이 있게 보여줄 것
- 가급적 10시 드라이 리허설 14시 30분 녹화에 조명이 협조해 줄 것

이관희 감독의 스튜디오 연출 과정 중 다른 드라마와는 달리 두 가지 다른 면의 진행을 했는데 모든 스튜디오의 진행을 대본 순서대로 진행을 한 것과 부조에서 cut 편집을 시도한 점이다. 대본 순서로 녹화를 진행함으로써 고참 연기자나 스타 연기자에 대한 미리 촬영하는 특혜(?)를 없애 연출자의 권위를 세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고 부조에서 일정부분 cut 편집을 통하여 여러 번 재촬영과 보충 촬영보다 연기자의 순간 감정을 매우 강조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내여자〉제작과정에서는 상기 나열한 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연출자와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프로그램 내용 및 연출 의도에 맞게 조명설계를 집중 관리하며 제작에 임하였다. 특히 장중환의 거실에 대해 다양한 연출과 시도로 최근 보기 드문 웅장한 세트가 표현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계획된 스케줄(▲리허설: 10:00 ▲녹화시작시간: 14:30)을 전회(全回)에 걸쳐 정시에 시작하는 선례를 남겼고 다른 드라마에서도 참고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6. 미술과 조명

미술(세트)과 조명은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매우 밀접하고 긴밀한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을 진행하며, 〈내여자〉제작과정에서도 미술과 조명과의 관계는 상호 협력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다. 〈내여자〉의 경우 초반엔 대본의 미리 나와 세트를 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후반 3~4회에서 대본의 늦음으로 인하여 다소 혼선이 생기기도 했으나 미니시리즈 제작 여건을 보았을 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장중한 거실 세트처리 부문

이 드라마 조명설계 진행과정에서 주요 핵심은 장중한 거실에 대한 세트 처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부직포로 덮힌 세트 처리와 계단 뒤쪽에 위치한 창문 세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살려 깊이를 만드느냐에 주안점을 두었다. 중앙 뒤쪽에 위치한 부직포 세트는 중간에 세트를 바치는 기동이 없어 조명 설치 요원이 세트위에 올라갈 수 없어 전날 아침 드라마 녹화를 마치고 조명 철수 후 일정한 포인트에 조명 등기구를 미리 설치하여 당일 세팅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했고 제작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중 계단 우측 창문의 햇살이나 달빛을 처리하기 위하여 5m 사다리를 사용했는데 세트다 워낙 높아 등기구를 설치하기가 다소 위험한 편이었다.

조명바톤 운용에 대한 배려

〈내여자〉프로그램 세트에서는 C-셋의 50%를 점유하는 대형세트가 스튜디오에 설치되었는데 뒤쪽의 창문과 부직포 세트 이외에는 대부분의 조명 바톤이 세트에 걸리지 않고 작업에 용이하게 하강할 수 있어 조명 세팅 시간과 효과적인 조명 설치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큰 세트에 조명 바톤까지 내려오지 않고 사다리나 바톤 길이 등을 사용하여 설치를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좋은 영상 구현도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소도구팀과의 관계

드라마 세팅을 하다 보면 새벽 또는 아침에 소도구팀과 조명팀은 항상 얼굴을 마주한다. 소도구팀은 약 6시 전후에 출근하여 지하에서 대소도구를 스튜디오로 반입하여 설치에 임하고 조명팀은 10시 리허설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6시 30분 전후에 준비를 한다.

원래 스튜디오의 조명 운용은 미술팀의 소도구가 모두 설치된 이후에 조명팀이 등기구를 부착하고 조명 포커싱이 모두 끝난 뒤 드라이 리허설이 진행됨이 원칙이나 모든 드라마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녹화를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소도구팀과 조명팀은 상호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제작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여자”에서도 상호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진행을 해 10시 리허설과 14시 30분 녹화에 상호 일조를 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소도구팀과 조명팀이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그림 4] 웅장한 정회장 거실



[그림 5] 계단세트의 정교함과 조명



[그림 4]



[그림 5]

7. 연기자와 조명

〈내여자〉에서 처음 대하는 주요 연기자가 많은 편이었고 그분들과 조명에 대해 작지만 공감대 형성을 하려고 노력해 보았다. 특히 조명에 있어 여자 연기자에 대해 조명의 각과 위치에 따른 연기자의 스킨톤이 매우 중요하고 중견 이상의 여자 연기자는 조명의 광량 및 각도 등의 위치에 따라 화면에 보여 지는 얼굴의 스킨톤이 아주 심하게 왜곡되거나 표현되기 때문이다.

조명이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아름답게 표현되는 것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조명에 대해 모든 것을 만족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편이다. 연기자에 대한 조명은 선명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라마의 내용에 적합성을 우선 고려하였다. 매번 부분적인 조명수정을 통하여 연기자에게 spot light가 1개 이상 투사되게 설계하였고, 이동 조명 스탠드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강 처리하였다. 연기자에 대한 조명은 100% 잘 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120% 잘 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조명은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림 6] 다양한 연기를 보여준 박솔미



[그림 7] 고주원과 최여진의 화상채팅



[그림 6]



[그림 7]

8. 영상과 조명

영상과 조명의 상관관계는 시청자의 눈에서 직접 평가받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여자〉 제작과정에서의 카메라 사용은 3대의 스탠드 카메라와 1대의 EFP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내여자〉 제작에서는 영상의 생동감을 높이기 위해 카메라 무빙(Camera Moving) 샷과 부감 샷을 적절히 사용하였다. 특히, 장중한 거실에서 부감샷을 많이 사용했는데 운용에 있어 드라마 이산 녹화 때보다 크레인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발생하였다. 촬영할 장소가 넓고 이동하는 공간이 많은 점도 있겠지만 크레인을 운용하는 엔지니어의 안목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디오의 안정적인 상태를 조절하기 위하여 가급적 평면에 가까운 위치에 차트를 설치하고 1kw spot을 주 광원으로 조절을 준비했다. 일정한 광원과 위치를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한 편이었다.



[그림 8]



[그림 9]

[그림 8] 크레인을 이용한 촬영



[그림 9] 크레인을 통한 부감샷

9. 음향과 조명

〈내여자〉의 음향은 장중한 거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 운용이 있었다. 거실 안쪽 세트에서 연기시 무선마이크를 연기자에게 장착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세트 공중에 여러 대의 마이크를 설치하여 수음하기도 했다. 거실의 넓은 음향구역을 수음하기 위해 2대 이상의 붐대를 사용하여 녹화를 했는데 역시 마이크 그림자가 항상 문제가 되었다. 드라마 녹화시 조명과 마이크 그림자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마이크 그림자를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은 쉽지 않은 편이다. 〈내여자〉에서도 마이크 그림자를 가급적 없애기 위해서 불필요한 등기구 is off시켜 운용하기도 하였고 일정부분 카메라맨이 앵글을 조정하여 없애기도 하였다.

장중한 거실과 같이 넓은 구역에서 연기자의 이동이 많은 연기의 수음시 일정부분 연출자와 협의하여 보다 작은 동선과 카메라 샷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출자의 모든 의도와 앵글을 수용하다 보면 음향에 대한 수음에 문제가 생겨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명파트에서는 22회부터 〈확산천〉을 사용하여 베이스 라이트를 없애 마이크 그림자를 보다 완화시키는 작업을 병행해 보았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 차기 아침 드라마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림 10]



[그림 11]

[그림 10] 확산천과 붐대를 사용한 장면



[그림 11] 보조 스태프

〈내여자〉 조명을 마치며

〈내여자〉 24회 제작기간 동안 미니시리즈의 스튜디오 제작 특성을 최대한 표출하고 기존 드라마 기법의 영상 차별화를 위해 몇 가지 새로운 기법을 시도해 보았다. HD 조명의 기본 환경은 보다 부드러운 빛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 주류인데 〈내여자〉에서는 부드러운 빛과 강한 빛으로 처리한 부분을 적절히 구사해 보았다.

조명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한 면도 있으나 보다 섬세하고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영상을 위해 지속적인 신기술 도입과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프로그램의 고품질 영상(HD) 제작에서 있어서 조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고 시청자의 영상미에 대한 기대치는 날로 상승하리라 본다. 이에 조명 연출 기법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타 전문분야와 지속적인 의견교환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재교육으로 보다 우수한 양질의 작품이 연출되리라 생각한다.